

비디오저널리스트(VJ)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태조사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

A Survey on the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by Video Journalists in Daejeon

이종탁*, 정종건**

목원대학교 영화영상학부*, 대전문화방송**

Jong-Tak Lee(ljt@mokwon.ac.kr)*, Jong-Geon Jeong(jong4585@hanmail.net)**

요약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VJ의 프로그램 제작 실태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양질의 VJ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방송도 VJ 제작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의 프로그램 제작 하청이라는 인식을 전환하여, 프로그램 질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다. 또한, 방송사측도 제작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VJ로서의 역할을 볼 때 방송국도 VJ를 공동 연출자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VJ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고화질 영상 제작의 한계, 영상 화질의 저하, 촬영 영상의 불안정성 등 보다 좋은 화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VJ 스스로의 노력들 또한 요구된다. 지역의 외주제작사들 또한 소규모 인력과 열악한 제작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화와 장비의 첨단화를 통해 지역 밀착형 콘텐츠의 발굴을 꾸준히 경주해야 외주제작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심어 : | 비디오저널리스트 | VJ 제작시스템 | 외주제작 | 방송프로그램 |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by video journalists (VJs), one of the recent trends of broadcasting production, centering around the programs made in Daejeon.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s that VJ programs ar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generalized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systems. Thus, production costs should be readjusted to a realistic level in order to secure the good quality VJ programs in the current situation. Local broadcasting stations should depart from the idea that they make a VJ program subcontract to produce programs at low cost. It is time to support good quality VJ programs financially and systematically. The survey also reveals that most video journalists cannot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program production. Local broadcastings should cooperate with video journalists, as co-producers, in producing the programs. Besides, VJ programs have some disadvantages such as limitation of high definition image production, poor image quality, instability of images taken, etc. Hence, video journalists should also try to make better image quality of their broadcasting programs. Local subcontractors should make efforts to overcome their poor manpower and production environments as well. By economizing their scale of production and updating their production equipment, subcontractors need to constantly develop the contents related to local community which make them more competitive.

■ keyword : | Video Journalist | VJ Production System | Subcontract Production | Broadcasting Program |

I. 서론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디지털이라는 형태의 고성능 소형 장비들이 개발됨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촬영과 편집, 그리고 송신이 가능하여 이로 인한 VJ 제작시스템이 가능해졌고, 방송 제작 현실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의 다양성을 위해서 VJ 제작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송사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VJ 제작시스템이란 기존의 최소 4~5명의 스텝(프로듀서, 카메라, 카메라 보조, 조명, 구성 작가, 운전 등)이 한 조를 이루어 프로그램을 제작 방식에서 탈피, 1인이 기획에서 자료 조사, 연출, 촬영, 진행, 편집 등의 과정을 해결해 나가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 제작 방식은 자연스럽게 촬영스텝의 감소 효과와 ENG카메라와 대비되는 장시간의 촬영이나 기동성을 요하는 촬영분 및 대상의 밀착취재가 가능해지며, 1회 제작비의 단가를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에서 VJ 제작시스템의 방송프로그램이 처음 선보인 것은 1996년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Q채널이 제작·방영한 '아시아 리포트'라 할 수 있다. 6mm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된 직후 기획되어 당시 방송 경력 5년 차 이상의 PD들에게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지급, 아시아 각국을 취재하여 방송가의 VJ열풍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VJ라 일컫는 많은 비디오 저널리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2].

현재, VJ시스템 도입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방송환경을 되짚어보면 많은 방송프로그램이 VJ들이 제작한 영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편성되고 있다.

그러나 VJ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의 증가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VJ 제작시스템의 매력은 저예산으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전쟁의 시대에 변화하는 방송 산업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VJ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으로써 다큐멘터리의 대중화, 저비용 고효율의 제작환경 등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반면, 흥미위주와 볼거리 중심의

프로그램이 유발하는 소재의 편중화, 교양프로그램의 연성화, 인권침해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VJ 제작시스템은 1인이 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박한 영상언어, 시각적 영상미나 텍스트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4]. 그러나, VJ 제작시스템으로의 변화는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적응하는 하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VJ의 실태를 조사·연구함에 목적이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VJ의 실태를 연구하는 주목적은 현재 갑(방송국)과 을(외주제작사)의 관계 속에서 VJ 프로그램의 제작 환경을 검토해보고, 지역에서 이러한 제작시스템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VJ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지난 4월말 경 심층 면접을 통해 대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디오저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지역은 방송외주 프로덕션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VJ가 많지 않은 관계로 샘플의 표본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커스그룹, 즉 VJ를 직접 조사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문내용은 비디오저널리스트로서 활동환경, 제작환경, 제작영상, 제작시스템에 관한 질문 등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여, 남자 13명, 여자 3명으로 총 16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II. 본론

1. 대전지역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 현황 및 활동 상황

대전에서 활동하던 VJ들은 개개인별로 지역방송사와 개개인이 일대일로 프로그램을 수주하여 제작하던 패턴을 벗어나 3명 내지 6명 정도의 그룹을 결성, 소규모 프로덕션에 편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규모나 재정 면에서는 영세 사업자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표 1. 대전지역 외주제작사

독립사	대표	구성 인원	담당 프로그램명
아이박스 미디어	김우찬	3명	대전MBC : 무지개(우리는 일촌) 생방송 NOW e-세상 이야기
프레임 9.9	채원식	6명	대전MBC : 생방송 전국시대 e-세상 이야기 뉴스 & 포커스 대전시청 인터넷 방송 기업 홍보영상
미디어 인	박찬동	4명	대전MBC : 건강매거진, e-세상 이야기 대전JB : 출동 VJ
AM	김병연	4명	대전MBC : 생방송 전국시대 대전JB : 출동VJ, 오행오감 전주민방 : 세상발견 유레카

VJ들이 그동안 지역 방송가에서 생활정보와 교양 프로그램 위주의 편중된 제작과 편성프로그램의 한 파트를 제작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은 발전된 다양한 장르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제작 분량에 있어서도 생활정보 위주의 10분 이내 코너를 주로 제작을 하다가 대전MBC의 경우 「e-세상 이야기」를 매달 1편씩 50분 전체 단위 프로그램을 담당, 지역 VJ들의 역량을 배가시켰다. 공동제작물인 휴먼 다큐멘터리인 「e-세상 이야기」는 대전, 청주, 충주 3사의 담당PD들이 매주 1편씩 제작하여 방송하고, 나머지 1편은 외주프로덕션의 VJ가 50분물 전체를 제작하고 있다. 물론 기획은 PD가 하지만 대본 이외 촬영, 편집, 더빙을 포함한 후반작업 전체를 외주사가 담당을 하여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대전MBC의 보도시사 프로그램인 「뉴스&포커스」에도 VJ 외주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장르로의 활동영역이 확장됨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2. 대전지역 VJ들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태

(1) 기본 신상조사

조사대상 16명의 성별은 남자13명, 여자 3명이며, 연령분포는 30세 미만이 6명(37.5%), 40세 미만이 10명

(62.5%), VJ로서의 활동이 전업·비전업 조사에선 15명(93.75%)이 전업, 1명(6.25%)이 비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J로서 활동한 경력은 1년 미만 1명(6.25%), 1-3년 미만 3명(18.75%), 3-5년 미만 4명(25%), 5-7년 미만 2명(12.5%), 7년 이상 6명(37.5%)로 나타났다.

표 2. VJ로서 활동경력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7년 미만	7년 이상
빈도	1	3	4	2	6
비율	6.25%	18.75%	25%	12.5%	37.5%

(2) VJ들의 활동 환경

방송프로그램 제작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어떠한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비롯한 총 6문항으로 구성을 하였다.

첫 번째 주로 활동하는 매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상파 15명(93.75%)과 케이블TV 1명(6.25%)으로 조사되었다.

표 3. 방송 매체 활동 분야

	지상파	케이블TV	인터넷	기타
빈도	15	1	0	0
비율	93.75%	6.25%	0	0

두 번째 활동매체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장르에 대한 질문에서는 복수응답을 가능하도록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뉴스/보도 8명(21.62%), 다큐멘터리 9명(24.33%), 교양/정보 16명(43.24%), 오락 4명(10.81%)로 나타나, 2-3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의 외주제작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유의미한 점이다.

표 4. VJ 방송프로그램 제작 분야(복수응답)

	뉴스/보도	다큐멘터리	교양/정보	오락	기타
빈도	8	9	16	4	0
비율	21.62%	24.33%	43.24%	10.81%	0

VJ들이 편당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은 5분-10분미만 10명(62.5%), 10분-20분미만은 4명(25%), 20-40분미만은 2명(12.5%)로 나타났다. 10분미만의 편성시간이 62.5%로 이는 각 방송 프로그램의 전체 편성시간 중 일부를 맡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프로그램 전체를 외주로 제작하는 경우는 아직 지역에서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제작 편당 평균 방송프로그램 시간

	5분-10분 미만	10분-20분 미만	20분-40분 미만	40분 이상
빈도	10	4	2	0
비율	62.5%	25%	12.5%	0

또한, 한 달 평균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제작 편수에서는 1편, 2편, 3편이 각 1명(6.25%), 4편 제작은 4명(25%), 5편은 4명(25%), 6편은 2명(12.5%)으로 조사됐으며, 8편 이상을 제작하는 VJ도 3명(18.75%)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5편 이상을 제작하는 비율이 56.25%로 나타나 짧은 기간 동안 다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6. 한 달 평균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수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이상
빈도	1	1	1	4	4	2	0	3
비율	6.25%	6.25%	6.25%	25%	25%	12.5%	0	18.75%

1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납품했을 시 지급받는 평균 제작료에 대한 조사에서는 20-40만원이 1명(6.25%), 40-60만원 5명(31.25%), 60-100만원이 10명(62.5%)로 나타났다.

표 7. 방송프로그램 납품 제작료(10분 분량기준)

	20만원-40만원	40만원-60만원	60만원-100만원	100만원 이상
빈도	1	5	10	0
비율	6.25%	31.25%	62.5%	0

대전지역에서 VJ로 활동하며 얻는 한 달 평균 수입

에 대한 조사는 100-200만원은 8명(50%), 200-300만원은 3명(18.75%), 300-400만원은 2명(12.5%), 500만원 이상은 3명(18.75%)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VJ가 프리랜서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구성원들이 주주형식으로 구성된 특성상 한 달 수입에 있어선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입 중 기타 경상비 및 프로그램 제작 경비 등이 지출되어야함에 실제 수입은 보다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8. VJ로서의 한 달 평균 수입

	100만원-200만원	200만원-300만원	300만원-400만원	400만원-500만원	500만원 이상
빈도	8	3	2	0	3
비율	50%	18.75%	12.5%	0	18.75%

VJ들의 활동환경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프로그램 제작료의 현실화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1997년 IMF 이후 프로그램 제작비 절감을 이유로 등장한 많은 VJ프로그램들이 지금은 하나의 보편화 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VJ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안정적으로 외주제작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사전제작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3) VJ들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대전지역 VJ들의 제작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취재대상의 선택권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방송프로그램 취재대상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담당 프로듀서 12명(75%), VJ 3명(18.75%), 기타가 1명(6.25%)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담당 프로듀서, 구성작가, VJ가 협의 하에 결정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유의미한 점은 외주제작이 방송국의 프로그램 하청 개념에서 VJ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취재아이템의 결정권은 방송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외주제작사의 사전 제작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9. 방송 프로그램 취재대상의 결정권

	담당 프로듀서	구성작가	VJ	기타
빈도	12	0	3	1
비율	75%	0	18.75%	6.25%

다음은 프로그램 제작 시 VJ의 의사 반영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절대 반영 1명(6.25%), 대체로 반영 4명(25%), 별로 반영안함 5명(31.25%), 전혀 반영안함 3명(18.75%), 모르겠다 3명(18.75%)로 나타났다. VJ의 의사반영에 대한 부정적 비율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68.75%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프로그램 제작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VJ의 실질적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점이 유의미하다.

표 10. 프로그램 제작 시 VJ의 의사 반영 여부

	절대 반영	대체로 반영	별로 반영안함	전혀 반영안함	모르겠다
빈도	1	4	5	3	3
비율	6.25%	25%	31.25%	18.75%	18.75%

프로그램 제작 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항에서 구성내용 7명(43.75%), 제작목적 5명(31.25%), 영상촬영 4명(25%) 순으로 나타나 외주제작의 주체로서 구성내용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갖고 제작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프로그램 제작 시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

	제작 목적	구성 내용	영상 촬영	제작 시간	제작 비용	기타
빈도	5	7	4	0	0	0
비율	31.25%	43.75%	25%	0	0	0

다음으로 프로그램 제작 시 애로사항을 묻는 조사에서는 제작시간의 부족 6명(37.5%), 제작비용의 확보 3

명(18.75%), 체력의 한계 3명(18.75%), 취재소스의 발굴 2명(12.5%), 취재원 섭외 1명(6.25%)로 방송현실에서 짧은 제작 시간이 가장 큰 애로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제작업무 가중으로 인해 체력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 프로그램 제작 시 애로사항

	취재소스 발굴	취재원섭외	제작시간 부족	영상구성 내용	체력한계	제작비용 확보	기타
빈도	2	1	6	0	3	3	1
비율	12.5%	6.25%	37.5%	0	18.75%	18.75%	6.25%

이어 프로그램 완성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선 매우 만족 1명(6.25%), 만족 9명(56.25%), 불만족 5명(31.25%), 매우불만족 1명(6.25%)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10명(62.5%)으로 나타나 짧은 제작 기간임에도 긍정적인 답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 완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빈도	1	9	5	1
비율	6.25%	56.25%	31.25%	6.25%

VJ들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사 결과 유의미한 점은 프로그램 제작 시 VJ의 의사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취재대상의 결정권에 있어서 담당프로듀서의 의사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VJ로서의 역할을 볼 때 방송국도 VJ를 공동의 연출자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VJ 프로그램 제작의 장·단점

다음은 VJ 프로그램 제작의 장점을 우선순위로 조사하였다. 자료를 단순 계량적 가치를 통한 점수법으로 환산, 우선 순으로 6점부터 1점까지 6단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결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 14명의 분석결과, 제작의 기동성 - 취재원과의 밀착성 - 제작단계의 효율성 - 제작경비의 경제성 - 다양한 소재의 확대 - 취재의 시의성 확대 순으로

나타나 소형화된 6mm디지털비디오카메라가 프로그램 제작 시 기동성과 취재원과의 밀착성 등이 ENG 제작 시스템보다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4. VJ 프로그램 제작의 장점(우선순 선택)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계
제작의 기동성	7	3	4	0	0	0	73
취재원과의 밀착성	0	3	6	3	2	0	52
다양한 소재의 확대	1	3	1	2	5	2	43
제작경비의 경제성	4	1	1	3	2	3	49
제작단계의 효율성	2	3	2	4	1	2	51
취재의 시의성 확대	0	0	0	3	4	7	24

같은 방법으로 VJ 프로그램 제작의 단점을 우선순위로 조사한 결과 8명이 응답, 고화질 영상 제작의 한계 - 영상 화질의 저하 - 촬영 영상의 불안정성 - 내용의 객관성 부족 - 내용의 전문성 결여 - 프로그램의 완성도 저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점은 고화질 영상 제작의 한계와 영상화질의 저하 등이 가장 큰 문제로 분석된 것은 주로 VJ제작 시스템은 VJ 혼자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촬영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영상화질의 제고는 카메라의 고화질 장비화와 음향채집과 조명 등의 활용에 보다 세심한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VJ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15. VJ 프로그램 제작의 단점(우선순 선택)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계
내용의 전문성 결여	0	0	1	5	2	0	23
프로그램의 완성도 저하	1	0	0	0	2	5	15
내용의 객관성 부족	0	0	3	3	0	2	23
촬영 영상의 불안정성	1	2	1	0	4	0	28
영상 화질의 저하	1	5	2	0	0	0	39
고화질 영상 제작의 한계	5	3	0	0	0	0	45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기획단계에서 어려운 점을 묻는 조사에서 소재발굴 6명(37.5%), 제작경비조달 5명(31.25%), 취재원 섭외 3명(18.75%), 영상구성 2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어려운 점

	소재발굴	취재원 섭외	영상구성	제작경비조달	기타
빈도	6	3	2	5	0
비율	37.5%	18.75%	12.5%	31.25%	0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촬영단계에서 어려운 점을 묻는 조사에서 기동취재 4명(25%), 취재원 밀착 3명(18.75%), 체력의 한계 3명(18.75%), 음향채집 2명(12.5%), 화질고려 2명(12.5%), 조명확보 1명(6.25%), 기타 1명(6.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프로그램 촬영단계에서 어려운 점

	영상 안정	화질 고려	취재원 밀착	기동 취재	조명 확보	음향 채집	체력 한계	기타
빈도	0	2	3	4	1	2	3	1
비율	0	12.5%	18.75%	25%	6.25%	12.5%	18.75%	6.25%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편집단계에서 어려운 점을 묻는 조사에서 촉박한 편집제작시간 12명(75%), 제한된 편성시간 2명(12.5%), 영상효과 등 편집기술 1명(6.25%), 기타 1명(6.25%)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제작 시 애로사항에 있어 37.5%가 거론한 짧은 제작기간 중 편집마감시간에 대한 고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18. 프로그램 편집 단계에서 어려운 점

	제한된 편성시간	촉박한 편집제작시간	영상효과등 편집기술	자율적 편집의 한계	기타
빈도	2	12	1	0	1
비율	12.5%	75%	6.25%	0	6.25%

VJ 프로그램 제작의 장·단점 조사 결과, 소형화 된 촬영 장비 등으로 기동성이나 취재원과의 밀착성 등은 프로그램 제작의 큰 장점으로 부각됐으나, 단점으로는 영상 화질에 대한 부분이 많은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제작 시 보다 양질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전 취재보다는 사후 구성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다보니, 후반 편집에 관련된

작업이 증가함으로 인해 업무의 하중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5) VJ 향후 전망

VJ로서 활동에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만족 2명(12.5%), 만족 5명(31.25%), 불만족 2명(12.5%), 매우불만족 2명(12.5%), 모르겠다 5명(31.25%)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점은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5명(31.25%)로 VJ로서 활동하며 여러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9. VJ로서의 활동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르겠다
빈도	2	5	2	2	5
비율	12.5%	31.25%	12.5%	12.5%	31.25%

VJ로서 활동하며 개선돼야 할 문제에 대한 조사는 경제적보상의 현실화가 12명(75%), 인식변화 3명(18.75%), 질적 완성도가 1명(6.25%)으로 나타나 방송국의 프로그램 납품 제작료의 현실화가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두 번째 VJ가 저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영상 제공자라는 방송가의 인식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하다.

표 20. VJ 활동 현실에서 개선점

	의사결정 확보	경제적 보상 현실화	질적 완성도	인식변화	기타
빈도	0	12	1	3	0
비율	0	75%	6.25%	18.75%	0

다음으로 향후 VJ의 활동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는데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확장 2명(12.5%), 어느 정도 확장 7명(43.75%), 거의 확장 안됨 1명(6.25%), 전혀 확장 안됨 1명(6.25%), 모르겠다 5명(31.25%)로 나타났다. VJ들의 활동영역 확장을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9명(56.25%)나타난 것은 IPTV 등 뉴미디어의 출현과 기존 매체들의 무한 경쟁 속에 콘텐츠 확보가 최대의 관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 향후 VJ 활동 영역의 확장 가능성

	매우 확장	어느 정도 확장	거의 확장 안됨	전혀 확장 안됨	모르겠음
빈도	2	7	1	1	5
비율	12.5%	43.75%	6.25%	6.25%	31.25%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 VJ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흥미위주의 소재 선택 5명(31.25%), 짧은 제작기간 5명(31.25%), 촬영영상의 불안정성 2명(12.5%), 내용의 전문성 결여 1명(6.25%), 기타 3명(18.75%)로 기타의견으로는 소재의 한계, 문제점 없음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VJ프로그램이 흥미위주의 소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VJ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장르 및 소재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촉박한 제작기간의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표 22. 6mm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

	빈도	비율
흥미위주의 소재 선택	5	31.25%
촬영영상의 불안정	2	12.5%
빠른 호흡의 영상편집	0	0
짧은 제작기간	5	31.25%
화질 저하	0	0%
고화질 제작의 한계	0	0
내용의 전문성 결여	1	6.25%
기타	3	18.75%

VJ 향후 전망 조사 결과, VJ 활동 현실에서 개선될 사안으로는 경제적 보상의 현실화가 지적됐다. VJ 제작 프로그램을 저렴한 제작비용의 프로그램 하청이라는 인식의 개선과 경쟁력 있는 지역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적 동반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III. 결론

다채널 다매체 시대를 맞아 콘텐츠의 부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위성과 인터넷 매체 등의 출

현이 지역성의 개념을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방송의 경쟁력은 오히려 철저히 내용적 지역성을 가지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콘텐츠를 누구보다도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지역 외주제작사의 활동 기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1997년 IMF 이후 프로그램 제작비 절감을 이유로 등장한 많은 VJ프로그램들이 지금은 하나의 보편화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VJ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둘째, 짧은 제작기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즉 촉박한 마감시간, 이로 인한 물리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VJ들의 사전 제작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안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VJ 자체적인 사전 제작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VJ 프로그램의 사전제작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VJ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고화질 영상 제작의 한계, 영상 화질의 저하, 촬영 영상의 불안정성 등 보다 좋은 화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VJ 스스로의 노력들 또한 요구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VJ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흥미 위주의 소재 선택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장르 및 소재의 발굴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될 것이다.

끝으로, 지역방송도 VJ방송프로그램을 저렴한 제작비용의 프로그램 하청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고, 프로그램 질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할 시점이며, 지역의 외주제작사들 또한 소규모 인력과 열악한 제작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화와 장비의 첨단화를 통해 지역 밀착형 콘텐츠의 발굴을 꾸준히 경주해야 외주제작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방송사 관점에서 외주제작에 대한 현실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외주제작의 확대 전망에 따라 프로그램을 발주하는 담당 프로듀서 및 각 방송사의 편성 담당자들의 외주제작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독립제작사와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 문헌

- [1] 이종탁, “미디어 컨버전 현상 속에 등장한 원맨비디오 오저널리즘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pp.4-8, 2002.
- [2] 이종탁, “방송프로그램제작에 있어 1인 제작시스템 변화”,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7권, 제8호, 2007.
- [3] 미디어 환경운동센터 모니터 연구팀, “VJ프로그램”, 방송문화 2002년 1월호, pp.52-53, 2002.
- [4] 손정호, “한국 VJ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5] 양문석, “외주정책 13년의 평가와 새로운 모색”, 외주정책 토론회, PD연합회, 2003.
- [6] 박재현, “지역민방 발전방안으로서의 VJ 시스템 활용에 관한 연구: iTV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7] 박소라,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 과정 특성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1.
- [8] 이수홍, “텔레비전 VJ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VJ 프로그램 현황분석과 KBS VJ 특공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9] _____, “2002-2005년 방송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2005.
- [10] _____, “중장기 방송 발전 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위원회, 2005.

저자 소개

이종탁(Jong-Tak Lee)

정희원



- 1991년 2월 : 대전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 2002년 8월 :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미술학석사)
- 2004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영상공학과(박사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영화영상학부 전임
강사

<관심분야> : 방송영상, 영상제작, 1인 제작시스템

정 중 건(Jong-Geon Jeong)

정회원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계획학 석사)
- 2006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신문방송학 석사)
- 2008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박사과정)

- 1987년 12월 ~ 현재 : 대전MBC TV편성제작부장

<관심분야> : 방송제작, 방송영상, 방송산업